



오너십으로 뚝뚝 뭉친 창의력 발전소



과제관리팀은 이다.

정답: 감독

팀원들은
하나하나가 회사의 다.

정답: CEO

네트워크 장비와 임베디드 솔루션 등의 개발을 통해 IT교역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다산네트웍스. 이곳의 핵심부서인 과제관리팀에서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에 대해 철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해당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게 관여해 그것의 위험요소와 성공가능성 등을 예측·분석하고, 더 좋은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또한 이들의 몫이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지요,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리스크 발견입니다. 모두 성공을 장담하고 있을 때 타당한 근거와 함께 그 위험 가능성을 제시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과제관리팀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죠.”

양성호 책임은 발견된 위험요소를 상부로 보고할 수 있는 용기와 창의적인 시각 등을 팀원의 필수 소양으로 손꼽았다. 즉, 과제관리팀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내다보고 중간교체의 적절한 시점을 짚아내며 선수가 편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단의 감독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 8명으로 이루어진 과제관리팀은 엔지니어부터 기획, 영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리를 해야 하기에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오너십도 누구보다 뛰어나다.

“위험 가능성을 예측해 실패를 방지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이 과제죠.”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나눠먹으며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갖는 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시간이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발상이 떠오르곤 한다고.

“과제관리팀 한 명의 말 한마디가 조직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만큼 팀원들의 생각이 각각 분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의 통일을 위해 팀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힘쓰죠.”

엄격한 상하관계보다는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손성은 책임. 바쁜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있는 팀원들의 앞날이 그들이 그려가는 미래의 청사진처럼 희망차기를 바래본다.